

BIEN CONGRESS 2023 공유지와 기본소득

# 커먼즈론에서 본 기본소득

정영신(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 문제 제기

- 커먼즈론과 기본소득론의 접점으로서 공동부(common wealth). 두 가지 이론적 논의를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논의의 도약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풍부한 논의를 전개해 볼 필요가 있음.
- 커먼즈론 → 공동부 개념 → 기본소득 논의
- 커먼즈론은 이론적 배경과 맥락이 다른 여러 논의들이 결합된 상태. 커먼즈 개념과 이론적 쟁점, 및 실천전략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
- 커먼즈론에서 공동부 논의로의 도약은 “커먼즈가 지닌 잠재력과 역동성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가?”
- 공동부에서 기본소득 논의로의 도약은 “공동부 논의는 기본소득론의와 어느 정도로 결합된 것인가?” 등등의 문제를 제기.
- 커먼즈론의 입장에서 문제들을 검토, 아직은 단편적인 고찰이지만….

# 커먼즈 논의 내부의 문제들1: 커먼즈 개념의 다양성

## ■ 요소론적 접근들

- 커먼즈=자원 → 초기 오스트롬의 기이한 설명 부재. 가렛 하딘의 영향(관리 없는 목초지)
- 커먼즈=자원+제도: 배제가 어렵고 경합성이 높은 자원(common-pool resources, CPRs)와 공동체재산권이 결합된 것. *The Drama of the Commons*(2002).
- 커먼즈는 자치적인 커머닝 제도들에 뿌리내린 유무형의 생산물(요하네스 오일러)
- 커먼즈=자원+제도+공동체 → 데이비드 볼리어, 미셸 바우웬스 등 커먼즈운동가들의 견해. 현대 커먼즈 형성에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 공동체의 역할 강조.

## ■ 실천론적, 관계론적 접근들

- 커머닝 없이 커먼즈 없다(피터 라인보우) → 커머닝의 실천활동을 통해 구성되는 것. 관계형성의 매개물로서 공동의 자원과 공간의 중요성 및 그 효과의 물질성을 간과할 우려.
- 커머닝(commoning)은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동료시민들의 자발적이며 포용적인 자기-조직화 활동과 조정활동”을 의미(요하네스 오일러)
- 커먼즈는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커머닝) 자원과 공간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 특정한=자치와 협력.
- 관계의 형태로서 체계(system)인가? 장(field, 물질(성)을 둘러싼 제도들의 사회적 배치)인가?

# 커먼즈 논의 내부의 문제들2: 연구방법론의 한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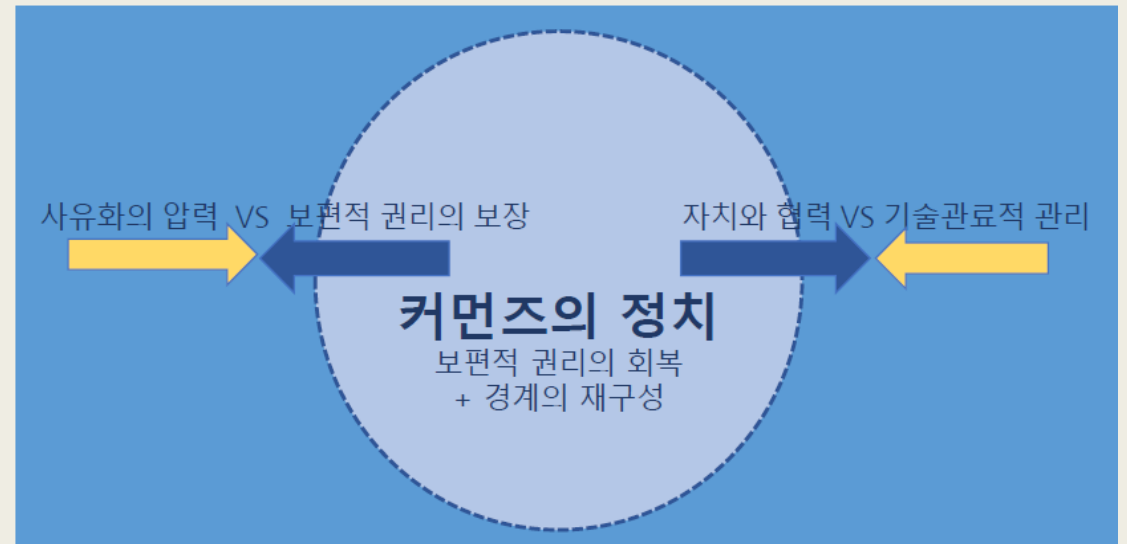
- 커먼즈 진영의 분단
- 오스트롬학파의 신제도주의적 접근: 협력 달성이 어려운 자원(CPRs)을 둘러싼 공동의 의사결정과 제도의 진화 연구. → 협력을 가능케 하는 미시적 행위상황에 초점. 미시에서 거시로의 영향(전환의 문제)에 대한 고려 부재. '주체 형성'에 대한 문제 의식 부재.
- 사회운동 진영의 운동론적 접근: 국가와 자본에 의한 인클로저와 공동의 부에 대한 약탈에 초점. 권력, 계급, 커먼즈의 역사성 강조. → 협력의 달성을 미리 전제.
- 양 진영 모두 분단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재.
- 커먼즈의 두 차원
- 우리의 것: 자치와 협력을 통한 생산과 재생산의 장. 공동체적(communal) 자원관리의 형태
- 모두의 것: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원리의 문화나 종교를 바탕으로 커먼즈의 법, 통치이념을 통해 구성되는 것. 필수재와 모두의 것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차원.
- 근대화: 모두의 것을 규정하는 커먼즈의 법의 폐지와 근대법 속으로 제도화된 우리의 것 (근대화된 커먼즈)
- 커먼즈의 정치(the politics of the commons): 커먼즈 경계의 재구성과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요청하는 정치의 작동.

# 커먼즈의 두 차원과 커먼즈의 정치

	우리의 것	모두의 것
기본 원리	Communal 자치(참여, 공공협력), 협력(돌봄, 재생산)	Public 보편적 권리, 근본적인 사회계약
사례	송계, 제주의 공동목장과 어장, 일본의 입회, 유럽의 커먼즈 목초지	15세기 조선의山林川澤 與民共之, 13세기 영국의 산림헌장, 로마법의 res communes, res publicae, res universitatis, res divini juris
제도의 성격	공동체의 자치 규약 경계의 확정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분배	커먼즈의 법, 통치이념 비배제적, 보편적인 권리의 보장
자원의 성격	구체적 대상, 경계를 가진 한정된 자원과 공간	사물의 추상적 범주로서 모두의 것 모두에게 보장해야 할 것: 생계자원, 필수재
주체의 성격	자원과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와 욕구 속에서 관계를 맺는 주체들의 집합(=공동체?)	모든 인류, 인민, 평민 등 추상적 집합적 존재
우리/모두	우리=경계를 만드는 공동체 '바깥'을 구분하는 주체	모두='바깥'을 포함하는 주체 경계의 횡단을 통해 구성되는 공동체
한계 지점	경계 설정이 갖는 차별, 배제, 독점의 가능성 사유화의 압력에 취약	개방성이 갖는 비협력의 가능성 '모두'는 인간들만의 공동체인가?

# 커먼즈에서 공동부 논의로

- 문제의 소재: 커먼즈의 다양성
- 커먼즈는 근대 이전 시기부터 일상적 용어로 사용되던 것이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도시커먼즈, 지식정보커먼즈, 디지털커먼즈 등등.
- 오스트롬학파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주로 공동체적 커먼즈(우리의 것)에 집중. 반면, 새롭게 확장된 커먼즈들은 모두의 것.
- 커먼즈의 다양성은 커먼즈의 두 차원의 구성원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 커먼즈론에서 공동부 논의로

- 따라서 '공동'의 의미와 경계는 정치와 운동을 통해 결정되는 것.
- 이러한 다양성과 정치적 결정은 다양한 층위에서 공동부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명하지 않은 '공동'을 미리 전제한 혼란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존재.
- 공동부 논의에서 '공동'은 주로 '모두'의 영역 또는 public의 의미와도 겹치는 것으로 이해됨. 기존 커먼즈연구에 따르면 규모의 증대는 거버넌스 구축의 어려움과 직결됨(vs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돌파될 가능성도 존재).
- 공동'부'의 의미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 공동부를 기본소득 논의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부'의 형태들 가운데, 물질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와 연결된 것들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 물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관적, 문화적, 상징적, 사회적 가치들을 포괄하는 모두의 것으로서 커먼즈의 가치가 축소될 우려. → 정체 성형성이나 운동의 확장 문제와 연결.

# 커먼즈론에서 공동부 논의로

- 모두의 것이 '기본권'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
- 모두의 것의 범주는 1) 필수재, 2) 모두의 것으로 생산된(선물로서 주어진) 것.
- 필수재의 의미 확장: 생계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 →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과 인권의 실현에 기능적인 것"(로도타위원회 의 이탈리아 민법개정안)
- 모두에게 선물로서 주어진 것과 기존의 공동부에 근거하여 집합적으로 생산된 것.
- 자유와 정의 관념에 기반하여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공통 기반.
- 모두의 것으로서 커먼즈, 공동부의 관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 역사적 경험은 공동부를 둘러싼 계급투쟁의 존재를 보여줌(산림헌장, 산림천택 여민공지). 그리고 이를 중지하는 사회적 대타협, 협약으로서 커먼즈의 법, 통치이념의 설립.
- 이탈리아의 현대적 경험 참조(정영신, 2022)
- 이는 다시 공동부, 커먼즈에 대한 시민적 욕구, 집합적 운동,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 우리-모두의 모순적 결합과 운동으로서 커먼즈



# 커먼즈-공동부-기본소득론: 경계와 자격의 문제

- "공동자원은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결을 달리하는 입호권, 무조건성을 부정하는 의무 사항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공동자원의 분배는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존재.
- 공동체에 기반을 둔 커먼즈, 공동자원 논의는 마을 사람들의 자격의 문제가 존재: 자격의 문제는 공동자원 운영에의 참여, 이용 및 수익 배분에서 경계를 설정
- 기존 커먼즈론에서는 이러한 커먼즈의 특성을 근거로 기본소득론과의 차이를 부각.
-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커먼즈를 우리의 것으로 제한하는 것.
- 반면, 기본소득 논의는 자격을 논하지 않는 보편성을 요구.
- 커먼즈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필요: 모두의 것의 이념을 상실할 경우, 사유화에 접근하며 시대추구행위로 변형될 우려.
- 경의선공유지운동에 대한 반대 여론: "너희들 누구 허락 받고 여기 와서 ..."
- 커먼즈의 정치를 통한 비판의 가능성: "인간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도구이자 공동체의 삶에 대한 참여의 가시적 표현으로서, 도시 커먼즈에 대한 관리와 재생에의 개입은 어떠한 정당화의 필요 없이 (without the necessity of any title of legitimation)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볼로냐의 커먼즈 규약 제4조)

# 커먼즈-공동부-기본소득론: 문화와 규범, 주체형성의 문제

- 기본소득론은 공동부 개념을 어떻게 포섭하는가? 도구적 전술적 개념인가, 기본소득의 관념을 재구성하는 근본적 개념인가?
- 기본소득론과 결합된 공동부는 주로 공동체적 커먼즈의 범위를 넘어선 모두의 것에 집중. → 규모가 커질수록 공유의 실천 (commoning)을 조직하기 어렵다.
- 우리의 것은 자치, 협력, 실천을 통한 문화와 정체성 형성의 장, 주체형성의 장이라는 점 → 커먼즈의 정치의 토대가 됨.
- 모두의 것의 영역에 우리의 것의 구성원리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제도설계인가, 끊임없는 운동과 정치인가.
-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자격을 묻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보편적 권리.
- 오스트롬학파 연구의 결과: 자원(공동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에는 공식적 비공식적 규범, 자치적 규칙(제도)이 반드시 필요. 이를 위한 집합적 의사결정과 조정의 과정은 협동만이 아니라 정체성, 문화, 공유의 주체를 형성.
- 공동부의 관념에 이를 결합할 수 있는가? 공동부의 이용권리와 기여의 의무 결합.
-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논의에 의무, 규범, 책무, 시민적 윤리를 결합할 수 있는가?

# 커먼즈론과 기본소득론: 커먼즈론의 과제

- 공동부예의 기여와 확장이 아니라 지대추구행위와 유사해지는 공동체적 커먼즈의 문제
- 지역 수준에서 지속적인 공동부에 대한 강탈(투기적 도시화, 젠트리피케이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집합적 문제로 제기할 필요성. 공동부 개념의 유용성.
- 우리의 것에서 공동부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것에서 커먼즈의 생태계'로 확장하는 정치와 운동이 필요. 이를 통해 경계의 상대화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층위에서 공동부를 설정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커먼즈론의 관점에서는 모두의 것을 규정해 온 커먼즈의 법, 근본적 사회계약을 재창안하는 커먼즈의 정치가 필요.
- 그러나 한국헌법의 제헌 과정에서 공동(권)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비판(박태현 이병천, 2017). 커먼즈, 공동의 이념에 근거한 헌법 다시쓰기가 가능한가?
- 커먼즈로서의 공동부, 특히 공공재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기술관료적 통치를 비판하고 상대화할 필요(경의선공유지의 경험).
- 우리-모두의 모순을 역동성으로 삼는 커먼즈의 정치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